

2024년도

자체감사 결과보고



전라남도체육회

<http://www.jnsports.or.kr/>

2024년도 자체감사 결과 보고

□ 감사 개요

○ 추진 근거

- ▶ 전라남도체육회 정관 제47조(회계감사 등).
- ▶ 시·군체육회 규정 제48조(체육회의 감사·징계 등)
- ▶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47조의 2(체육회의 감사·징계 등)

○ 기간 및 장소

- ▶ 2024. 1. 22.(월) ~ 1. 24.(수), 3일간 / 전라남도체육회관 5층 소회의실

○ 대 상

- ▶ 전라남도체육회
- ▶ 시·군체육회(5개 단체) : 여수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해남군
- ▶ 회원종목단체(7개 단체) : 볼링, 산악, 소프트테니스, 수영, 수중핀수영, 스키, 승마

○ 감 사 반

- ▶ 전라남도체육회 : 박종희·박명국 행정감사, 박성진 회계감사
- ▶ 회원단체
 - ┌ 박종희·박명국 행정감사, 박성진 회계감사
 - └ 박경채 행정지원본부장, 부장(정현숙, 정희진, 안요섭, 공갑석, 강재홍)

○ 감사 내용

- ▶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체육진흥 사업 전반

□ 2023 세입·세출 결산 현황

(단위 :천원)

회 계	세입결산	세출결산	잔 액	잔액현황	
				이월금	반납액
계	48,403,325	40,252,328	8,150,997	6,228,500	1,922,497
일 반 회 계	26,525,054	24,231,694	2,293,360	1,948,658	344,702
특 별 회 계	20,749,997	15,129,816	5,620,181	4,042,386	1,577,795
퇴직적립금	1,919,739	2,689	1,917,050	1,917,050	
체육시설관리운영	1,012,130	1,012,009	121		121
전국체전 경기운영비	15,436,736	13,798,043	1,638,693	61,019	1,577,674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금	1,901,622	31,400	1,870,222	1,870,222	
전남스포츠과학센터운영	479,770	285,675	194,095	194,095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1,128,274	890,818	237,456	237,456	

□ 감사 결과

- 전라남도체육회 정관 제47조(회계감사 등)에 의거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체육진흥 사업 전반을 감사한 결과,
 - 1. 자산내역 중 예금은 광주은행 전남도청 출장소 및 농협은행 전남 도청 출장소에서 발행한 예금잔액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하였으며, 기타 실물자산은 제증빙 자료를 조사하여 확인하고,
 - 2. 업무 실적 등은 제반사실 기록에 기초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한 바,
- 감사 결과, 재무 상태와 업무 실적에 대하여 정관 및 제규정에 따라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음.

.

총 평

□ 전라남도체육회에서는

- 민선2기 새로운 시작과 함께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전남체육실현”을 비전으로 소통과 화합에 주안점을 두고 새로운 집행부 구성과 체육 행정의 차질없는 사업수행의 목적 달성을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 예산심의위원회 등 16개의 각종 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합리적인 체육행정 추진과 각계각층의 덕망을 갖춘 참신한 체육인사 참여로 전남체육의 위상제고는 물론 조직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음
- 특히, 2008년 이후 15년만에 전라남도 목포시를 중심으로 22개 시·군에서 분산개최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통하여 전남의 위상을 높인 **화합과 감동·문화관광·미래희망** 체전으로 **승화**시키며, 17개 시·도선수단과 18개 해외동포선수단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 3만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역대 최대규모의 전국 체전에서 **종합성적 4위와 성취상 1위**를 차지하였으며, 또한 도내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을 위해 공공스포츠클럽 등 19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최상위 성과를 이루어냄으로써 전라남도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고 전남체육의 자긍심을 크게 높이며 **힘찬 제2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음
- 그러나, 회원종목단체의 조직이 취약하고 많은 우수선수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어, 경기력 향상에 큰 타격을 받는 어려운 실정으로 도내 기업체와 시·군 행정기관직장팀 창단 및 육성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전남체육의 경쟁력을 강화 시켜야겠음
- 따라서, 전남체육진흥과 발전을 위해서는 경기력향상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도지원 예산의 확대를 통해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마련, **회원단체 조직의 재정비**, 도내 **유수기업체**의

실업팀 창단, 취약한 시·군취업선수 육성의 한계를 탈피한 행정기관 직장팀 창단 운영, 열악한 도내대학 운동부 육성 방안, 스포츠과학 센터의 맞춤형 체력측정, 선수 회복훈련 지원과 함께 각종 사업비의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궁극적으로 **체육진흥의 기반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제104회 전국체전의 성공개최 발판을 통해 도내 지역별 경기장 시설완비와 체육인프라 확충으로 동·하계 전지훈련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통한 전남을 찾는 엘리트선수 및 동호인들의 대외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전남의 특성을 최대한 부각시켜 오는 5월에 개최되는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역대 어느 대회보다도 **차별화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체육인들과 함께 **도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야 할 것임

□ 이번 자체감사를 통해 체육회 업무전반을 살펴본 바

- 국고보조금통합관리(기금)시스템인 e-나라도움, 지방보조금관리(도비)보템e 시스템 시행으로 각종 보조금의 예산집행 및 정산 등 투명한 보조금 관리를 위해 사무처 직원 및 회원단체 관계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다 더 세심한 주의와 지속적인 교육이 수반되어야 겠으며,
- 아울러, 사무처 직원들의 행정서비스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선순환 체계 마련을 위해 전라남도와 전문가 집단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체육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직원들의 업무수행 향상을 위해 소관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직무연찬과 함께 각종 직무 관련 교육 참여 등을 확대시켜 행정능률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제도 개선 사항

① 보조금 전용통장 및 회계 관리 철저

- 지방보조금법 제34조 및 지방보조금관리기준 제10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고, 이 경우 보조금만을 별도 관리할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 등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사업등 9개의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별 보조금 전용통장은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사업 담당자의 사업비 교부계좌 착오 기재 및 교부기관의 착오 입금 등으로 보조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비 통장과 혼용되어 회계 처리되는 등 보조금 전용통장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앞으로 보조금 관련 법령 등의 규정을 숙지하여 동일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② 회원종목단체 전자결재시스템 활용화 방안 도모

- 전남체육회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전산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 전남체육회와 회원단체(시군체육회, 종목단체, 스포츠클럽)에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행정문서의 전자유통을 실시하고 있는바,
- 전남체육회와 시군체육회, 스포츠클럽의 경우 각종 행정문서를 전자결재로 처리하고 있으나, 회원종목단체는 실무담당자인 전무이사(사무국장)등이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거나 정보화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사유로 감사일 현재까지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이 전무한 상황임

- 이에 사무처 직원들이 사안마다 종목단체 실무담당자의 개인 이메일, SNS 등으로 공문서 송신 및 실무담당자가 바뀌면서 문서가 유실되는 등 공문서 관리 소홀 및 행정력 낭비로 당초 시스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는 실정임
- 앞으로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회원단체 행정지원 전담 직원 육성 또는 시스템 활용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등을 통한 전자결재시스템의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③ 보조사업 정산 관리 소홀

- 보조금관리조례 등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보조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 후 제출한 실적(정산) 보고서를 토대로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 내용 등에 적합하게 보조금이 사용되었는지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보조금을 확정 통지하고, 보조금이 당초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2023년도 체육회가 회원단체에 지원한 전국규모대회 개최 지원비 등 총 713건 중 157건의 보조 사업이 사업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정산보고가 지연되고 있고,
- 동일한 사례로 전라남도 및 대한체육회 등 외부감사 수감시 연례적·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시정조치 되지 않고 있어 행정의 신뢰도가 실추될 우려가 있음
- 조속한 시일내에 정산 촉구 등의 절차를 거쳐 정산검사를 완료하기 바라며, 향후 관련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에 패널티 적용 및 보조금 지원을 중지 또는 감액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아울러 각종 회계교육의 반복적 실시를 통해 회원단체의 역량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④ 경기력향상사업비(우수선수 지원) 개선

- 우수선수육성비 지원 규정에 의거 매년 300여명의 우수선수를 선정하여 전국체전 경쟁력강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지속적으로 학생선수 감소와 학교운동부 미육성 및 감축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학교운동부 발전을 위해선 장기적인 사업계획 수립, 추진이 필요.(종목별 연계육성(초-중-고-대-일) 시스템 구축)
- 또한, 전국체전의 순위 상승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도 전문체육 활성화 및 우리도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경기력향상사업비를 세부 사업으로 구분하여 명확한 예산으로 적절히 반영한 운영이 절실히 필요.(직장운동경기부 신규 및 재계약선수 영입비 지원, 전략종목팀 운영, 팀 창단 지원 등)

⑤ 회원시·군체육회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보조금 지원

-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단체의 통합과 법정법인화로 회원시·군체육회의 행정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행정직원에게 대한 직무교육 등 지속적인 역량강화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중·장기적으로 행정시스템이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음에 따라, 도 체육회 차원에서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워크숍 개최를 통해 행정능력을 배양케 하고, 회원·시군체육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정보조비 지원 방안 마련 필요

[6] 회원종목단체 조직정비 및 관리 강화

- 본회 회원종목단체규정 및 가입·탈퇴규정에 의거 71개 종목단체(정회원 58, 인정 13)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자체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종목단체가 전문선수와 생활체육동호인 규모가 적다는 사유로 집행부임원 및 대의원 수가 규정에 부합되지 않게 운영하고 있는 등 종목단체 활성화를 위한 자체노력이 소홀함에 따라, 종목단체 활성화를 위한 조직정비방안 마련 및 관리를 강화하고 본회 가입·탈퇴 규정에 의거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회원종목단체 관리 필요

[7]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관리 철저

- 회원종목단체 회장 및 임원의 임기가 2025년 정기대의총회 전일까지로 종료됨에 따라 금년중 본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19조(회장의 선출) 및 회원종목단체선거관리규정에 의거 실시예정인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가 투명하고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도 체육회 차원에서 선거업무 매뉴얼 작성 배포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8] 공공스포츠클럽의 시·군체육회 회원단체 가입 등 활성화 마련

- 스포츠클럽 등록제 및 지정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할 목적인 스포츠클럽법의 제정(2021. 6. 15.) 및 본격 시행(2022. 6. 16.)은 물론 스포츠클럽을 시·군체육회의 회원으로 하는 스포츠클럽 관리 규정이 명문화됨에 따라, 종합형 19개와 한종목 스포츠클럽 17개 등 총 36개의 전국 최다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도로서는 스포츠클럽의 해당 시·군체육회 회원으로 가입하는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군체육회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등 지방체육의 활성화 기틀을 다져나가야 할 것임

- 또한 2026년 상반기까지 공공스포츠클럽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종료에 대비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예비)스포츠클럽 제도를 활성화 하고 있는 만큼 특화프로그램 및 전문선수반 운영 등의 다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순차적인 준비를 통해 스포츠클럽의 운영 내실화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임 총력

2024. 1. 24.

		박 종 희	(인)
전라남도체육회	감 사	박 명 국	(인)
		박 성 진	(인)